동국대 학생들 "부처님 법 전하겠습니다"

의학계열 불교동아리 학생들
은해사서 불교문화체험 나서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 활동
돈관스님 "눌 자비 실천하길"



동국대 의학계열 불교동아리 학생 130여 명이 8월 26~27일 양일간에 걸쳐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경내 육화원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고, 약사여래서원 수계법회를 통해 전법 의지를 다졌다.

배철완 대구경북지사장

동국대 의학계열 불교동아리 학생 130여 명이 8월 26~27일 양일간에 걸쳐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경내 육화원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고, 약사여래서원 수계법회를 통해 전법 의지를 다졌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란 주제로 열린 이번 템플스테이는 사단법인 상월결사(회주 자승)가 한국불교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생전법위원회 활동 일환으로 마련됐다. 학생들은 첫날 오후 3시 입재식에 이어 사찰예절 및 발우명상을 통해 사찰문화를 익히고, 팔정도 토론과 단주 만들기로 신심을 다졌다.

은해사 주지 덕조 스님은 입재식에서 "오늘 템플스테이가 유익한 체험이 되어 부처님 법 전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의 은해사 방문을 환영했다. 은해사는 이번 행사를 위해 침구까지 특별히 주문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27일에는 새벽예불을 시작으로 '나를 찾는 걸음 명상'에 이어 대학생전법위원장 돈관 스님(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을 계사로 한 약사여래서원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수계사 돈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려운데 여러분은 부처님 법을 만났다"며 "특히 사람의 몸을 다루는 여러분은 이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자비를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학생들은 광명조요대원, 신여유리대원, 수용무진대원, 대승안립대원, 삼취구정대원, 제근구족대원, 중환실제대원, 안립정견대원, 기근안락대원, 의복엄구대원 등 약사여래불 서원십계를 합송하며 불제자로 살 것을 다짐했다.

돈관 스님은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관정수기(灌頂授記)를 내려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어줬으며, 은해사 주지 덕조 스님은 수계첩을 수여했다.

돈관 스님은 "이제 여러분을 삿된 기운 물리치는 신장님들이 지켜줄 것이니 용맹스럽고 기품 있고 당당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학생들은 수계첩을 받아들고 불자로 거듭났다. 서지현(의학과4, 불명 여의주) 학생은 불명을 받은 소감을 묻자 "한층 경건해졌다"며 수계첩을 들어보였다.

동국대 의학계열 불교동아리 템플스테이에는 이사장 돈관 스님을 비롯해 은해사 주지 덕조 스님, 동국대 의료원 지도법사 혜능 스님, 은해사 연수국장 혜석 스님, 채석래 동국대 의료원장, 김광기 기획처장, 이관 의과대학장, 김기욱 한의과대학장, 정주호 동국대 경주병원장 등 180여 명이 함께했다.

한편 제10교구본사 은해사 대학생전법단은 성원 스님(미래본부 사무총장), 용주 스님(거동사 주지), 지안 스님(미래본부 국장), 여여 스님(은해사 포교국장), 무공 스님(안흥사 주지), 선지 스님(죽림사 주지), 선웅 스님(은해사 기획국장), 서오 스님(영천포교당 주지), 혜능 스님(제적사 주지), 성호 스님(은해사 복지국장) 등으로 구성됐다. 은해사 권역 경일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예술대, 대구한의대, 영남대, 대경대, 성운대, 영남외국어대, 한국폴리텍로봇캠퍼스, 호산대 등 11개 대학에 전법단을 지도할 예정이다.

마이산 탑사 갑룡장학회 지역 청소년 장학금 전달

40명에 총 1440만원 전달



마이산 탑사 갑룡장학회(이사장 진성)가 올해에도 지역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갑룡장학회는 8월 25일 진안 전통문화전수관에서 초·중·고교생 28명과 대학생 12명에게 총 144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선발된 장학생은 진안군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밝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청소년들이다. 장학생은 자원봉사자들의 가족 중 진안군 31개 자원봉사단체와 협약기관의 추천을 거쳐 선발됐다.

장학금 전달에 앞서 마이산 탑사 문도회는 중앙승가대에 재학 중인 정진 스님을 비롯한 문도스님들의 학업을 위해 별도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남상준 붓다봉사단 총괄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장학금 전달식에는 진성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강원종무원장 성인 스님, 전주 천지사 현진 스님, 진안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 전춘성 진안군수, 김민규 진안군의장,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전문순 복성산업개발 부회장, 이재현 붓다봉사단장, 김용진 前진안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해 진안군자원봉사센터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장학생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장학금을 전달한 진성 스님은 "우리 이웃을 살피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장학금 전달이 올해로 10년을 맞이하게 됐다. 타인에게 나를 낮추고 배려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장학금을 전달해왔다"며 "오늘 장학금을 받은 청소년들이 나눔을 적극 실천하고 봉사하면서 나라와 진안군을 위해 자원봉사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도 축사를 통해 진안지역 청소년에게 꾸준히 장학금을 전달해온 탑사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전 군수는 "진안 출신의 훌륭한 선배들 뜻을 이어받아 더욱 빛나는 진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도 진안의 미래가 되어달라는 격려의 의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8월 25일 김해 금강사에서 봉행된 비담당 금산 대선사 49재 회향법회.

비담당 금산 대선사 49재 회향법회

삼보조계종, 8월 25일 김해 금강사서

대한불교삼보조계종(총무원장 법장)이 원로원장 비담당 금산대선사의 49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8월 25일 김해 금강사 대법당에서 봉행된 회향법회는 지난 7월 입적한 금산대선사의 49재를 맞아 삼보조계종과 대한범불교종단협의회가 주관했다.

법회에는 금산문도회 자문위원장 자광 스님, 삼보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삼보조계종 사무총장 평산 스님, 불국사 지일 스님, 봉국사 동산 스님, 영산정사 법웅 스님, 혜광선원 혜광 스님, 봉암사 애심 스님, 칠성사 일행 스님, 비로암 무익 스님, 약수암 도각 스님, 김성후 재가제자, 김순연 불교문화예술보존회 대표 등 문도와 불자들이 참석했다.

삼보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봉행추도사를 통해 "금산 대선사는 한국불교의 흥복이었고 대선사의 걸음은 지혜의 불이요, 허공의 뼛속을 뚫는 법등불이었다"며 "삼라만상 어디선가 대선사의 청아한 음성이 들리는 것 같다"고 추모했다.

문장 자광 스님은 "선화의 붓 끝에 마음을 실어 부처님 은혜를 갚겠다는 뜻을 이제야 알겠다"며 "큰스님의 공덕으로 부처님 법력을 널리 전해 이 땅에 불국정토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선운사 동불암지, 동쪽 아닌 銅"

오강석 위원 주장…"동불암 오기 수정을"

선운사 등 동불암 관련 전각들
불상 동쪽 방향과는 연관 없어
지역사료 통해 근거 다수 확인
"전문가 조사, 학술대회 필요"


선운사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 호상 부위에는 20개의 구멍이 뚫려있다.

보물 '고창 선운사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의 동(東)을 동(銅)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창학연구회(사료조사위원 오강석)는 8월 29일 발표한 조사 자료를 통해 "보물 마애여래좌상이 소재한 선운사 동불암지(東佛庵址)는 본래 동불암지(銅佛庵址)였다"고 주장했다. 1994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될 당시부터 명칭에 오류가 있었지만, 여전히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오기 역시 수정되지 않는 것이다.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은 고려 공민왕 때 불상의 호상에 구리 주물을 씌워 '동불(銅佛)'이 됐다. 높이 15.7m, 무릎 너비 8.5m 규모다. 눈과 비를 맞지 않도록 얼굴 위쪽에 청자기와를 올려 보호각도 설치했다. 불상 아래에는 하도솔암(下兜率庵)을 지어 동불과 암자를 아울러 속칭 '동불암(東佛庵)'이라고 불렸다.

동불은 1648년 태풍의 영향으로 얼굴의 구리 주물이 떨어져 파괴되면서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졌다는 게 고창학연구회 주장이다. 동불이 재등장한 것은 1969년 5월 28일, 한 나무꾼이 발견·신고하면서부터다. 나무꾼은 동불암의 동(銅)을 음이 같은 동(東)으로 오기해 신고했고, 직후 '고창 선운사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高敞 禪雲寺 東佛庵址 磨崖如來坐像)'이라는 명칭으로 보물로 지정됐다.

오강석 고창학연구회 사료조사위원은 "〈전선원무장지(全鮮元茂長誌)〉〈무장현읍지(茂長縣邑誌)〉〈무장읍지(茂長邑誌)〉〈전라도읍지(全羅道邑誌)〉 권9의 '전선무장지(全鮮茂長誌)' 등 다양한 문헌 자료에서 '불상의 호상에 구리 주물이 씌워져 있었음(而面像則鑄銅而掛之)'을 명확히 밝히고, 그 구리 주물이 사라진 시기와 이유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며 "문화재 등재 당시 문헌조사를 시행했다면 어렵지 않게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고창학연구회는 정확한 고증을 위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실제 고창학연구회는 올해 7월 직접 증거를 찾기 위해 세 번에 걸쳐 정밀 드론촬영을 진행하기도 했다.

오 위원은 "△부처님 호상 부위에 집중된 20개의 구멍이 구리 주물 고정을 위해 철제를 꽂았을 것이라 예상되는 점 △호상 구멍들이 좌우 대칭적으로 뚫려 있어 동판의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한 안배로 보이는 점 △호상 부위 암석 변색 부분이 구리 부착으로 인한 산화 흔적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향후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 현장 조사와 학술세미나 개최 등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